

우리나라 해안의 패류사각 분포

임미정* · 제종길** · 전상린*

우리나라 해안의 생태계 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방안 중에 하나로 해안 조간대 상부 또는 조상대에서 채집되는 패류 (연체동물) 사각의 종조성과 분포를 조사하였다. 전국 해안 27개의 지역에서 조사가 되었으며, 생체는 채집하지 않았다.

전체 조사해역에서 채집된 연체동물 표본을 동정한 결과 복족강, 이매패강, 굴족강 등 세 강에 속하는 66과 220종이 확인되었다. 복족류는 모두 128종으로 전체 출현종 수의 58.2%를 차지하였으며, 이매패류는 90종(40.9%), 굴족류는 2종(0.9%)으로 나타났다. 출현종 수는 단순한 서식지를 가진 해안보다는 다양한 서식지의 형태를 지닌 모래해안에서 많은 종이 출현하였다. 27개 조사지역 중에서 가장 많은 패류 상을 보여준 곳은 제주도 송악산 해안으로 73종이 출현했고, 강릉이 6종으로 가장 빈야간 지역이었다.

종의 출현 유·무로 조사지역간 유사성을 파악하는 집괴분석의 결과 여섯 개 지역군으로 나눌 수 있었다. 지역군은 바위해안 지역과 갯벌 해안지대에서 확연히 구분되었고, 해안 서식지 특성을 잘 반영하였다. 집괴분석의 결과에 따르면 패류 사각 조성도 해안 생태계의 특성을 지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밝혀졌다. 또한 해안에서 사각의 채집은 해양생태계 연구를 위한 보전성이 높은 조사방법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사각의 연구가 환경교육이나 여러 자연과학 연구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상명대학교 생물학과

** 한국해양연구원